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43-10

2020. 12.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 구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민 석 (연 구 원)
공동연구원: 김 태 완 (전문연구원)

요 약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첫째,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도시 및 농어촌 주민 3,0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정책 추진 전략에 따라 부문별 조사 항목을 개편하였다.

둘째,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 통계적 특성, 농어촌 지역 유형에 따른 각 정책 부문 여건 만족도 차이 및 이주 의향을 살펴보았다.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연령별, 농어업 종사 여부별, 귀농·귀촌 여부별로 살펴보았으며, 농어촌 지역 유형은 읍·면 격차를 확인하고 근교, 읍·면 소재지, 원격 평야, 원격 산간, 원격 어촌 등 5개 지역 구분에 따른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중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과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만족감은 도시 지역보다 높지만, 거주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주관적 웰빙 지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승하지는 않았으나, 도시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가된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의 조사 결과 역시 농어촌 지역이 더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는 마을 및 시·군에 대한 소속감, 대인관계, 정책 신뢰도 등 4개 항목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 부문에 따른 세부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조사부터 부문별 문항 구성을 개편함에 따라 과거 조사 결과와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일부 전년도와 동일한 세부 항목의 만족도 점수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경제 활동 여건에 대해 도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족도 점수가 낮아 그 차이가 적었던 반면, '분만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보건의료 여건 및 '대중교통', '문화·여가 프로그램'에서는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심각했다. 농어촌 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로는 의료 서비스 및 소득 기회, 자녀 교육 환경, 교통 여건 순으로 꼽고 있어, 이들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과 대체로 부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각 여건에 대한 읍·면 지역의 만족도 격차가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주민의 특성과 농어촌 지역의 유형에 따라 각 여건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면 지역의 정주 여건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읍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가운데 읍·면 지역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생활 서비스' 항목을 비롯한 정주생활 기반과 관련 서비스로 나타난다. 이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격차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젊은 연령층은 '분만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신속한 응급 서비스', '농어작업 안전', '대중교통' 항목에서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저조한 만족도가 두드러졌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 주민은 교육·문화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교육·문화와 정주기반 부문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림어업 외의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문화 활동 외에도 경제 활동에 대한 여건의 미흡함을 느끼고 있었다. 젊은 연령층 주민, 농어업인 외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의 이주 의향이 비교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교 농어촌 지역에서는 문화 및 경제 활동 여건, 원격 평야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 여건, 원격 어촌 지역에서는 보건 의료 및 안전 분야에서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다. 원격 산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상의 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정주 여건에 대한 도·농 격차 발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 추진 전략 부문별 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뒤쳐지는 원인을 분석하되, 과거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도시와의 격차가 심한 보건의료 및 문화·여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여건 개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이들과 관련된 핵심 항목의 이행실태가 부진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정서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종합적이면서도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계층별, 지역 특성별 상이한 수요에 부합하도록 삶의 질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인구의 잠재적인 이탈 요인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주 의향이 특히 높은 집단은 젊은 연령층, 농림어업 비종사자 또는 근교 농촌 지역과 원격 어촌 지역 주민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이 각자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이한 수요를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알맞게 충족해주지 못한다면 실제 인구 이탈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힘들지도 모른다. 젊은 연령층이 특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나 농작업 안전 문제 등 농어촌 지역에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원격 산간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원격 어촌 지역에서는 타지역보다 낙후한 보건의료 체계와 안전한 환경을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농어촌 정책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유기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3. 조사 항목 점검 및 개편 ····· 4

제2장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8
2.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 11

제3장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1.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 13
2. 정책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 18
3.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 27
4. 소결 ····· 30

제4장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특성

1. 분석 개요 ····· 32
2.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분석 ····· 33
3. 농어촌 지역 유형별 분석 ····· 41
4. 소결 ····· 5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조사 결과 요약 ····· 51
2. 시사점 ····· 54

부록

1. 2020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 57
2. 2020년 농어촌 지역 모집단 및 조사 표본 수 비교 ····· 65
3. 2014~2019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 66
4.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 여건 만족도 ····· 72

참고문헌 ····· 73

표 차례

제1장

〈표 1-1〉 '공동체 및 지역사회' 신규 문항 ····· 5
〈표 1-2〉 세부 정책사업의 신규 문항 반영 내역 ····· 6
〈표 1-3〉 삶의 질 기본계획 정책 부문별 세부 항목 변경 사항 ····· 7

제2장

〈표 2-1〉 2020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 10
〈표 2-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 11
〈표 2-3〉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 12

제3장

〈표 3-1〉 최근 3년 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 14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변화 ····· 16
〈표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 19
〈표 3-4〉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20
〈표 3-5〉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20
〈표 3-6〉 정주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21
〈표 3-7〉 경제·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22
〈표 3-8〉 세부 항목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와 도·농 격차 변화 ····· 23
〈표 3-9〉 2020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비교 ····· 25
〈표 3-10〉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 26
〈표 3-11〉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 ····· 28
〈표 3-12〉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 29

제4장

〈표 4-1〉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 34
〈표 4-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 35
〈표 4-3〉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 36
〈표 4-4〉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 37
〈표 4-5〉 연령대별 주요 만족도 하위 항목 ····· 39
〈표 4-6〉 농림어업 종사여부별 주요 만족도 하위 항목 ····· 39
〈표 4-7〉 귀농·귀촌 여부별 주요 만족도 하위 항목 ····· 40
〈표 4-8〉 지역 유형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 ····· 42
〈표 4-9〉 지역 유형에 따른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 44
〈표 4-10〉 지역 유형에 따른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 45
〈표 4-11〉 지역 유형에 따른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 46
〈표 4-12〉 지역 유형에 따른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 47
〈표 4-13〉 읍·면 만족도 격차 상위 5개 세부 항목 ····· 49
〈표 4-14〉 지역 유형별 만족도 하위 5개 세부 항목 ····· 49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조사 방법 및 개요 ····· 9

제3장

〈그림 3-1〉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 15
〈그림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비교 ····· 17
〈그림 3-3〉 도시·농어촌 주민 이주 의향 조사 결과 ····· 27

제4장

〈그림 4-1〉 농어촌 주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주 희망 응답 비율 ····· 38
〈그림 4-2〉 농어촌 주민 이주 의향 조사 결과(읍·면 구분) ····· 47
〈그림 4-3〉 농어촌 주민 이주 의향 조사 결과(지역 유형 구분) ····· 48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따라 수립된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동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기구로, 국무조정실 총괄 이하 21개 부처·청으로 구성된 범부처 조직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농어업인삶의질법」제46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인삶의질법」제44조 제5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수준을 점검·분석해야 하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2015년 7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하위 조직으로 삶의질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하였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된 조사다.

-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는 조사는 2012년부터 매 년 수행되고 있다.
-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0개, 20개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도시 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지역별 층화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고 있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측정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2020년도 조사는 새로이 시작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첫 해에 수행되는 조사로서, 일부 문항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삶의 질 향상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이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한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에는 기존 조사에서 실시해오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지수, 그리고 올해 조사의 신규 추가 항목인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가 포함된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 부문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한다.
- 또한 각 지역에서 삶의 질 정책의 주요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중요도를 파악한다. 4대 부문 추진 전략은 각 분야별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건의료,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복지,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한다.
- 그밖에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특성 분석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 농어촌 지역의 유형에 따른 삶의 질 기본계획 각 정책 부문 여건 만족도 차이 및 이주 의향을 살펴본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를 연령대, 농어업 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 등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여건 만족도와 이주 의향을 분석한다.
- 농어촌 주민이 느끼는 여건 만족도의 읍·면 격차를 살펴보고, 나아가 농어촌 지역 유형을 5가지 유형(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읍·면 소재지, 원격 평야 지역, 원격 산간 지역, 원격 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거주하는 주민의 여건 만족도와 이주 의향을 분석한다.

3. 조사 항목 점검 및 개편

❍ 기존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점검하고, 주요 조사 문항과 틀을 유지하되 사회적 환경과 이슈에 맞추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일부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

-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지표 중 하나로서 '공동체 및 지역사회'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새로운 정책 추진 전략 수립에 따라 부문별 세부 문항을 조정하였다.
- 매 년 수행되는 조사로서 기존과 연속성이 있는 정책 등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고려하여 기존의 11점 척도(0~10점)를 유지하였다.

3.1. '공동체 및 지역사회' 문항 신규 추가

❍ OCE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요 항목인 '공동체'와 '시민참여' 항목의 지표를 반영한 신규 문항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추가하였다.

- OECD에서는 2011년부터 2년마다 OECD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 지수를 측정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1)]
- 2020년 보고서인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에는 각 회원국 국민의 소득, 복지, 주택, 건강, 환경, 안전 등 현재 웰빙 상태 11개 부문과 경제적, 자연적, 인적, 사회적 자본 등 미래의 웰빙 자본 4개 부문을 합한 총 15개 부문별 지표 조사 결과와 분석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지표체계 중 하나로서 국민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1) 2017년 이후 최근 보고서는 2019년이 아닌 2020년 3월에 발간되었다.

-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OECD, WHO 등 국제 통계 뿐 아니라 국내 통계청 및 각종 부처, 연구원에서 도출하는 통계자료를 출처로 하여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여가, 주거, 환경 등 11개 부문 71개 세부 항목에 대한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2)]
- 2017년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OECD의 삶의 질 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항목을 참고하여 주관적 웰빙 항목을 신설하였다.
- 2020년도 조사에서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주민의 정책 효능감과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묻기 위해 아래 〈표 1-1〉과 같이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국민 삶의 질 지표 조사에서 '주관적 웰빙'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지표들을 묶어 '공동체 및 지역사회' 항목의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표 1-1〉 '공동체 및 지역사회' 신규 문항

출처	관련 문항	신규 설문 문항
국민 삶의 질 지표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도/시·군·구/읍·면·동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3)]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시·군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4)]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OECD 삶의 질 지수	사회적 관계 및 교류	귀하는 이웃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다고 느끼십니까?

3.2. 부문별 여건에 대한 기존 문항 개편

❍ 2020년부터 새로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삶의 질 정책 추진 전략 부문별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2)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https://www.index.go.kr/unify/main.do)를 통해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3)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 항목이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지역사회 소속감'으로 활용되고 있다.

4)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이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기관신뢰도'로 활용되고 있다.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시기의 정주 만족도 조사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대 부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①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②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④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가지 추진 전략에 따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본 조사에서는 이 4가지 부문을 각각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로 축약하여 지칭하였다.
- 아울러 2020년도 조사에서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재편된 세부 사업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공통 문항 2개, 농촌 주민 전용 문항 2개, 도시 주민 전용 문항 1개 등 총 5개의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1-2〉 세부 정책사업의 신규 문항 반영 내역

부문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 정책사업	신규 설문 문항
보건·복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소아 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과목이 다양하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양호하다.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경제·일자리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농촌 지역만 설문)특산품이나 농산물 가공·판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지역의 특성에 따른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푸드플랜 내실화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농어촌 관광 활성화	농촌관광활성화	(도시 지역만 설문)농촌 지역에 체험,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맛집), 지역 축제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어촌관광활성화	
		해양관광활성화	
		농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포용적 디자인 기술 확산	
		음식관광 활성화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농촌 지역만 설문)여성 농업인 및 다문화 주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여성 역량 강화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7대 부문에서 제4차 기본계획으로 올해부터 전환되면서 바뀌는 각 정책 부문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기 위해 전년도와 올해 조사 항목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삶의 질 기본계획 정책 부문별 세부 항목 변경 사항

제3차 기본계획 (32개 항목)		제4차 기본계획 (34개 항목)	
부문	**세부 항목**	**부문**	**세부 항목**
보건·복지 (7)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건·복지 (9)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 서비스 범위
	아동 양육·보호 지원		의료 서비스 수준
	취약계층 복지 지원		분만·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아동 양육·보호 지원
교육 (4)	학교 교육 여건		취약계층 복지 지원
	방과 후 교육 기회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만)
	평생학습 기회	교육·문화 (8)	공교육 수준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방과 후 교육 기회
정주생활기반 (6)	주택 상태		평생교육 기회
	생활 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생활 서비스		문화·여가시설
	대중교통		문화·여가프로그램
	통신 시설		문화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		향토문화 향유
경제활동 ·일자리 (4)	소득기회	정주기반 (11)	대중교통
	경제여건 향상		통신시설
	농외소득(농촌만)		생활 인프라
	일자리 지원		생활 서비스
문화·여가 (4)	여가 시설		주택 상태
	여가 프로그램		교통안전
	향토문화 향유		자연재해 안전
	문화 공동체 활동		범죄 안전
환경·경관 (3)	정돈된 환경경관		적은 환경오염
	에너지 비용 절감		정돈된 환경·경관
	적은 환경오염		에너지 비용 절감
안전 (4)	범죄 안전	경제·일자리 (6)	소득 기회
	교통안전		경제여건 향상
	자연재해 안전		농외소득(농촌만)
	농작업 안전(농어업인만)		농어촌관광(도시만)
			일자리 지원
			여성·다문화 일자리(농촌만)

2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Online-survey)와 방문 면접 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함께 진행하였다.[5)]

- 2020년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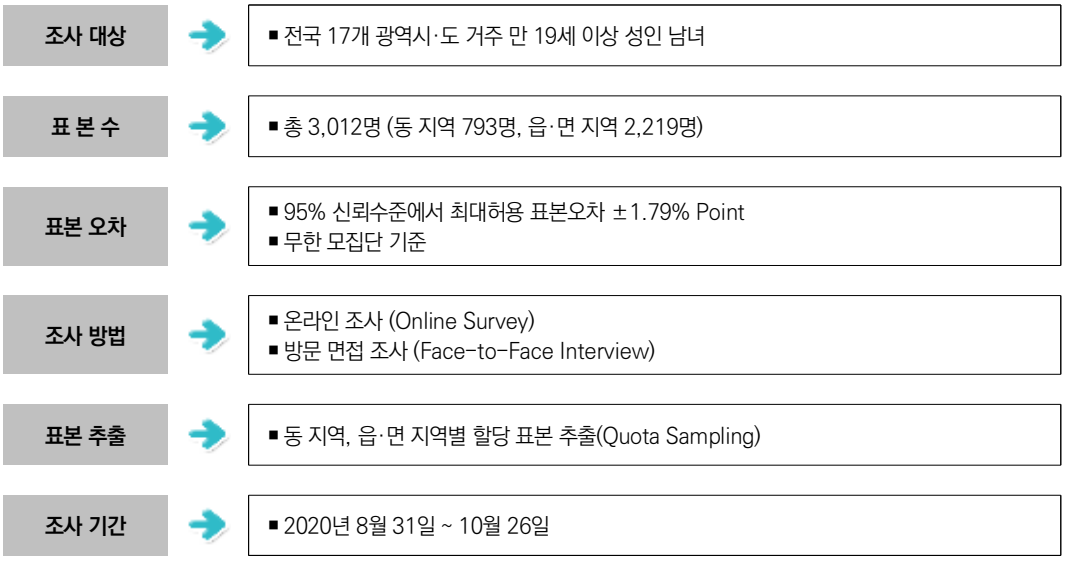
○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응답자 표본을 추출했다.

- 본 조사에서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도시 지역은 700명, 농어촌 지역은 2,000명을 할당할 것을 계획하고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진행하였다.

5) 온라인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방문 면접 조사는 알앨안컨설팅에 각각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3,012명이며, 그 중 동 지역 주민 응답자는 793명, 읍·면 지역 주민 응답자는 2,219명이었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1.79%p 이다.

〈그림 2-1〉 조사 방법 및 개요



❍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정책 전략별 여건 만족도, 정주 여건 분야별 정책 중요도, 이주 의향 등이다〈표 2-1〉.[6)]

-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측정해오던 행복감, 거주 지역에서의 만족도 및 발전 전망 인식, 주관적 웰빙 지수에 더해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를 새로이 측정하였다.
-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까지 적용한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7대 부분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에 따라 세부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 만족도를 묻는 각 항목은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여, 일부 항목에서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부록 1〉의 '2020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참조

〈표 2-1〉 2020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 행복감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정도 및 가능성 인식 ○ 주관적 웰빙 지수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전략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별 6~11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4개 추진 전략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 분야별 정책 중요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개 분야 정책 중요도 1순위 (보건의료,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복지,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이주 의향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 본 조사는 기초자료로서 각 정주 만족도 점수의 비교·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후속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인 경제 위축, 사회활동 감소 등으로 심리적인 위축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응답자의 정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본 조사 결과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 또한, 올해 조사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농어촌 응답자 중 면 지역, 고령 주민, 농어업 종사자 등 일부 집단의 비율을 늘려 표집하였다. 표본과 모집단의 실제 비율과 차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각 집단별 여건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였다.

2.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2-2〉와 같다.

〈표 2-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3,012	100.0%	전체		3,012	100.0%
도시·농어촌	도시(동)	793	26.3%	교육 수준	무학	113	3.8%
	농어촌(읍·면)	2,219	73.7%		초졸·중졸	552	18.3%
거주 지역	서울	231	7.7%		고졸	635	21.1%
	인천·경기	521	17.3%		대졸	1,555	51.6%
	대전·충청	601	20.0%		대학원 이상	157	5.2%
	광주·전라	529	17.6%	건강 상태	좋음	1,342	44.6%
	대구·경북	416	13.8%		보통	1,135	37.7%
	부산·울산·경남	474	15.7%		나쁨	535	17.8%
	강원·제주	240	8.0%	가족 구성	독신 가구	484	16.1%
성별	남성	1,556	51.7%		1세대 가구	803	26.7%
	여성	1,456	48.3%		2세대 가구	1,511	50.2%
연령대	19~29세	206	6.8%		3세대 가구	189	6.3%
	30대	612	20.3%		조손 가구/기타	25	0.8%
	40대	716	23.8%	이주 의향	있음	1,430	47.5%
	50대	529	17.6%		없음	1,582	52.5%
	60세 이상	949	31.5%	귀농귀촌 여부	그렇다	293	9.7%
거주 기간	10년 미만	997	33.1%		아니다	2,719	90.3%
	10~19년	589	19.6%	직업	농업·임업·어업	841	27.9%
	20~29년	387	12.8%		자영업	250	8.3%
	30~39년	283	9.4%		사무·관리직	1,005	33.4%
	40년 이상	756	25.1%		생산·기능·노무	269	8.9%
혼인 상태	기혼	2,268	75.3%		주부	320	10.6%
	미혼	744	24.7%		학생	38	1.3%
연간 가구 소득	1,000만 원 미만	403	13.4%		퇴직	56	1.9%
	1,000만 원대	515	17.1%		무직/ 기타	233	7.7%
	2,000만 원대	550	18.3%				
	3,000만 원대	465	15.4%				
	4,000만 원 이상	1,079	35.8%				

○ 농어촌 주민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2-3〉과 같다.[7)]

〈표 2-3〉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전체		2,219	100.0%
읍·면	읍	923	41.6%
	면	1,296	58.4%
거주 지역	인천·경기	307	13.8%
	대전·충청	539	24.3%
	광주·전라	478	21.5%
	대구·경북	331	14.9%
	부산·울산·경남	345	15.5%
	강원·제주	219	9.9%
성별	남성	1,120	50.5%
	여성	1,099	49.5%
연령대	19~29세	109	4.9%
	30대	400	18.0%
	40대	467	21.0%
	50대	369	16.6%
	60세 이상	874	39.4%
거주 기간	10년 미만	677	30.5%
	10~19년	374	16.9%
	20~29년	245	11.0%
	30~39년	206	9.3%
	40년 이상	717	32.3%
혼인 상태	기혼	1,781	80.3%
	미혼	438	19.7%
연간 가구 소득	1,000만 원 미만	365	16.4%
	1,000만 원대	462	20.8%
	2,000만 원대	449	20.2%
	3,000만 원대	332	15.0%
	4,000만 원 이상	611	27.5%

구분		사례수	%
전체		2,219	100.0%
교육 수준	무학	112	5.0%
	초졸·중졸	550	24.8%
	고졸	534	24.1%
	대졸	934	42.1%
	대학원 이상	89	4.0%
건강 상태	좋음	1,039	46.8%
	보통	763	34.4%
	나쁨	417	18.8%
가족 구성	독신 가구	365	16.4%
	1세대 가구	715	32.2%
	2세대 가구	978	44.1%
	3세대 가구	139	6.3%
	조손 가구/기타	22	1.0%
이주 의향	있음	895	40.3%
	없음	1,324	59.7%
귀농귀촌 여부	그렇다	270	12.2%
	아니다	1,949	87.8%
직업	농업·임업·어업	835	37.6%
	자영업	169	7.6%
	사무·관리직	564	25.4%
	생산·기능·노무	203	9.1%
	주부	225	10.1%
	학생	19	0.9%
	퇴직	33	1.5%
	무직/기타	171	7.7%

7) 권역별 농어촌 지역 모집단 수와 조사된 표본 수 비교는 〈부록 2〉 참조

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1.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지수,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를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지수는 동일한 문항으로 기존에 조사해오던 항목들로, 최근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는 올해 새로이 추가된 문항으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향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예정이다.

1.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중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높지만,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점수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소폭 하락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격차

는 각각 0.7점, 0.5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다.

-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 항목에 대한 도시 지역의 평가는 전년도와 비교해 변화가 없으나, 농어촌 지역에서 점수가 하락하였다. 전년도 두 항목은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다시 농어촌 주민의 평가가 도시 주민의 평가를 밑돌고 있다.

〈표 3-1〉 최근 3년 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11점 척도)

구 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도시지역(동)	5.9	5.7	5.5	6.1	6.0	5.8	6.5	6.2	6.2	6.5	6.3	6.3
농어촌지역(읍·면)	6.1	6.4	6.2	6.2	6.4	6.3	6.2	6.3	5.7	6.3	6.4	6.0
도농차이 (농촌-도시)	0.2	0.7	0.7	0.1	0.4	0.5	-0.3	0.1	-0.5	-0.2	0.1	-0.3

1.2. 주관적 웰빙 지수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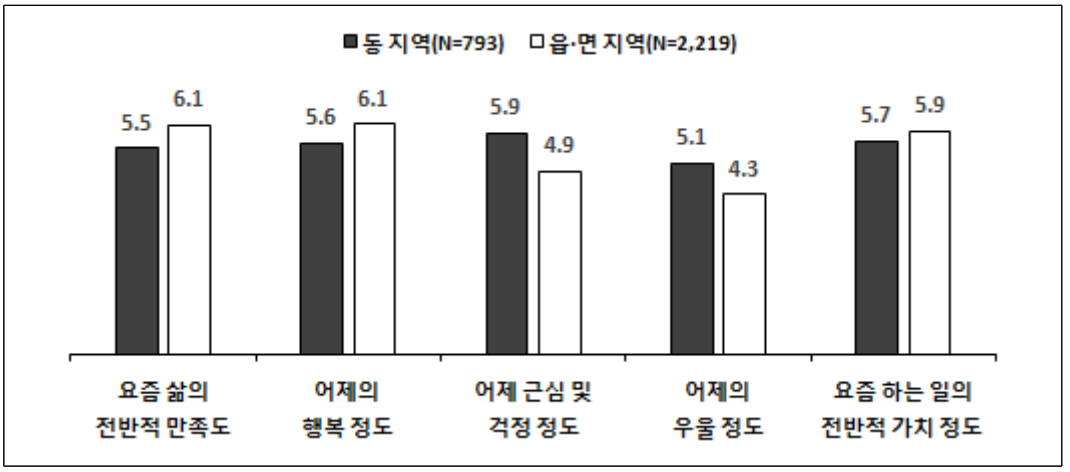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가 도시 주민에 비해 높다.

-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 ‘어제의 행복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정도’는 긍정적 정서를 묻는 문항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는 부정적 정서를 묻는 문항으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즉, 긍정적인 정서를 묻는 모든 문항에서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도시 주민보다 높고, 부정적 정서를 묻는 모든 문항에서는 낮다는 것은 주관적 웰빙 전체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그림 3-1〉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11점 척도)



❍ 전년도에 비해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는 모두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가 도시 주민에 비해 높다.

-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정도'문항에 대한 도시 주민의 응답이 5.7점,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문항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응답이 4.9점(역코딩 시 5.1점[8])의 전년도 점수를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주관적 웰빙을 나타내는 점수들이 하락하였다.

-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와 '어제의 우울 정도'문항의 점수를 역코딩하여 총 5개 문항의 주관적 웰빙 지수 평균을 산출한 결과, 농어촌 주민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0.6점의 차이로 도시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부정적 의미의 지표에 대한 점수를 11점 척도 기준에서 역으로 환산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변화

(11점 척도)

구분	1.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4.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5.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평균 (3번, 4번 문항 역코딩)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도시 지역 (동 지역)	5.6	5.5	5.8	5.6	5.6	5.9	4.8	5.1	5.7	5.7	5.3	5.2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6.3	6.1	6.4	6.1	4.9	4.9	4.1	4.3	6.1	5.9	6.0	5.8
도·농차이 (농촌-도시)	0.7	0.6	0.6	0.5	-0.7	-1.0	-0.7	-0.8	0.4	0.2	0.7	0.6

주: 3번, 4번 문항은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

1.3.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조사 결과

○ 올해 조사부터 도입되는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문항은 응답자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등을 묻는다.

- OECD 삶의 질 지수와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공동체'와 '시민참여'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 본 문항을 통해 주민의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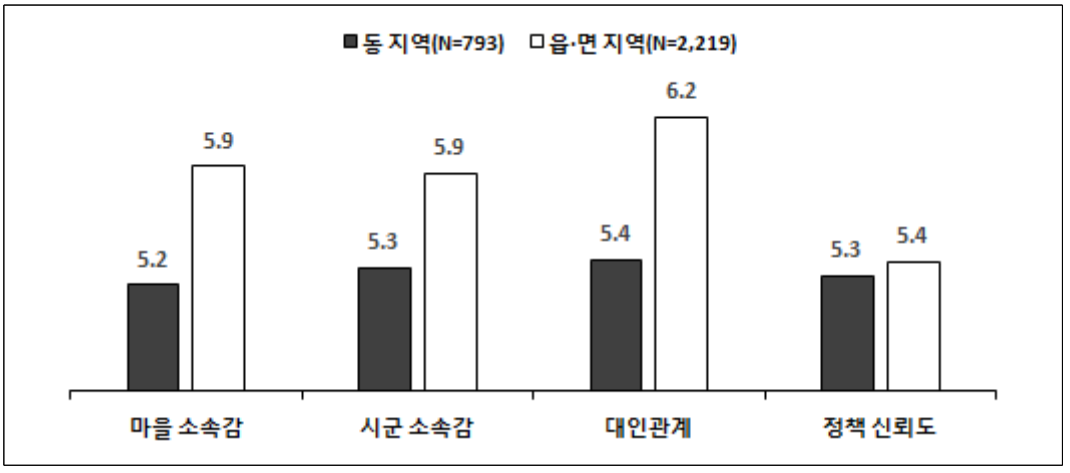
○ 지역에 대한 소속감, 대인관계, 정책 신뢰도를 묻는 네 개의 문항에서 모두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높다.

- 대인관계에 대한 두 지역의 점수 차이가 0.8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대인관계는 응답자가 이웃 또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문항이다.
-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시·군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점수도 도시 주민은 각각 5.2점, 5.3점인데 반해 농어촌 주민은 5.9점으로 더 높다. 앞서 대인관계 문항과 연결지어본다면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공동체 관계를 훨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신뢰도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농어촌 주민의 정책 신뢰도가 도시 주민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비교

(11점 척도)



2. 정책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의 각 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해 각각 설문하였다.

- 올해부터 새로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각 부문과 부문별 세부문항에 대한 여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다만 정책 분야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4개의 분야로 설문하기에 다소 포괄적이라고 판단하여, 보건의료,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복지,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야를 꼽도록 하였다.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대 추진 전략별 만족도 비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의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보다 전반적인 여건을 열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모든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떨어져, 삶의 질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특히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1.6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보건·복지 분야는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도 도-농 만족도 격차가 가장 컸기 때문에, 여전히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정주기반 부문(5.9점)이며, 경제·일자리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4.6점으로 가장 낮다.

- 4대 전략 부문 중 교육·문화와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 5.1점보다 낮다.

- 특히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절대적인 점수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표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11점 척도)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6.8	5.2	**-1.6**
교육·문화	6.1	4.8	-1.3
정주기반	6.9	5.9	-1.0
경제·일자리	5.5	**4.6**	-0.9
전체 평균	6.3	5.1	-1.2

주: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에서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으로 재구성되었음에 유의

2.2. 세부 항목별 만족도 비교

□ 보건·복지 부문

❍ 보건·복지 부문의 여건을 나타내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주민보다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 특히 '분만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가 2.3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농어촌 주민이 가장 열악하다고 느끼는 보건·복지 여건은 '분만의료 서비스(4.4점)'이다.

- '분만의료 서비스'는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심할 뿐 아니라, 여러 보건·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젊은 인구가 농어촌 지역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 정착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3-4〉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세부 항목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양육·보호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	전체 평균
도시 지역	7.4	7.1	6.9	6.7	7.0	6.5	6.3	6.2	-	6.8
농어촌 지역	5.7	5.0	5.1	**4.4**	5.2	5.5	5.4	5.6	5.9	5.2
도·농차이 (농어촌-도시)	**-1.7**	**-2.1**	**-1.8**	**-2.3**	**-1.8**	-1.0	-0.9	-0.6	-	-1.6

주1: 도시·농어촌 지역 점수 비교를 위해 농어촌 지역 점수 평균을 '농어작업 안전' 문항을 제외하고 계산함.
2: '농어작업 안전' 항목은 농어업 종사자에게만 설문함. (n=835)

□ 교육·문화 부문

○ 교육·문화 부문 여건에 대해 농어촌 주민은 도시보다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다.

- 도·농 간 만족도 평균 점수의 격차는 1.3점으로, '문화 공동체 활동'과 '향토문화 향유' 항목 외 나머지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격차는 이러한 평균값을 웃돌고 있다.

○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다.

- 교육·문화 부문 중 '공교육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5.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여가 시설'이 각각 4.4점, 4.6점으로 낮게 나타난다.
- 농어촌 지역에서도 도시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표 3-5〉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세부 항목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향토문화 향유	전체 평균
도시 지역	6.6	6.5	6.1	6.1	6.2	6.2	5.7	5.7	6.1
농어촌 지역	**5.2**	5.1	4.7	4.7	**4.6**	**4.4**	4.7	4.9	4.8
도·농차이 (농어촌-도시)	-1.4	-1.4	-1.4	-1.4	**-1.6**	**-1.8**	-1.0	-0.8	-1.3

□ 정주기반 부문

○ 정주기반 여건을 나타내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주민의 만족도를 밑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 및 '생활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 '대중교통'에 대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1.9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 '범죄 안전', '정돈된 환경·경관', '교통안전', '적은 환경오염' 등 안전 및 환경·경관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0.5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이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여건은 '대중교통(5.2점)'이며, '에너지 비용 절감(5.4점)'과 '생활 서비스(5.6점)' 항목의 만족도가 뒤이어 하위권에 속한다.

- 특히 '대중교통'과 '생활 서비스' 여건은 도시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밑돌고 있다. 두 항목은 지난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주생활기반' 부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꾸준하게 농어촌 지역에서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아온 부진 항목들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대중교통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표 3-6〉 정주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세부 항목	대중 교통	통신 시설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주택 상태	교통 안전	자연재해 안전	범죄 안전	적은 환경 오염	정돈된 환경 ·경관	에너지 비용 절감	전체 평균
도시 지역	7.1	7.6	7.3	7.3	6.7	6.5	7.0	6.7	6.6	6.6	6.1	6.9
농어촌 지역	**5.2**	6.1	5.9	**5.6**	5.9	6.0	6.2	6.4	6.1	6.2	**5.4**	5.9
도·농차이 (농어촌-도시)	**-1.9**	-1.5	-1.4	**-1.7**	-0.8	-0.5	-0.8	-0.3	-0.5	-0.4	-0.7	-1.0

□ 경제·일자리 부문

○ 농어촌 주민이 도시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도 '소득 기회' 항목은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평가가 가장 낮은 항목에 해당한다.

-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 '농어촌관광' 여건은 도시 주민이 평가한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중 세부 문항의 평균을 밑돌고 있다.

- 올해 조사에서 추가된 '농어촌관광' 항목은 농어촌 지역에 도시 주민이 즐길만한 충분한 농어촌관광 자원이 갖추어져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향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서 본 조사의 만족도 점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7〉 경제·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세부 항목	소득 기회	경제여건 향상	농외소득	농어촌관광	일자리 지원	여성·다문화 일자리	전체 평균
도시 지역	5.6	5.3	-	**5.2**	5.5	-	5.5
농어촌 지역	**4.5**	4.6	5.0	-	4.7	4.8	4.6
도·농차이 (농어촌-도시)	**-1.1**	-0.7	-	-	-0.8	-	-0.9

주1: '농외소득'은 농어촌 주민(n=2,219) 대상으로만, '농어촌관광'은 도시 주민(n=793) 대상으로만 설문함.
2: 도시·농어촌 지역 점수 비교를 위해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설문한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함.

□ 4대 전략 부문 전체 세부 항목 비교

○ 도시 지역과 비교가 가능한 30개 세부 항목 전체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주민의 만족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 시기에 이루어진 과거의 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설문한 세부 항목을 〈표 3-8〉과 같이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건 만족도가 하락하고 도·농 간 격차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점수가 크게 하락한 경향이 나타나, 그 요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3-8〉 세부 항목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와 도·농 격차 변화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2019년	2020년	만족도 증감	도·농 격차 증감폭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6.1	5.7	-0.4	0.4
	분만의료 서비스	5.1	4.4	-0.7	1.0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6	5.2	-0.4	0.6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5	5.5	0.0	0.3
	아동 양육·보호 지원	5.6	5.4	-0.2	0.0
	취약계층 복지 지원	5.6	5.6	0.0	0.0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만)	6.3	5.9	-0.4	-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5.8	5.2	-0.6	0.7
	방과 후 교육 기회	5.7	5.1	-0.6	0.7
	평생교육 기회	5.4	4.7	-0.7	0.8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2	4.7	-0.5	0.8
	문화·여가 시설	5.3	4.6	-0.7	0.8
	문화·여가 프로그램	5.1	4.4	-0.7	1.0
	문화 공동체 활동	5.1	4.7	-0.4	0.8
	향토문화 향유	5.6	4.9	-0.7	0.4
정주기반	대중교통	5.7	5.2	-0.5	0.6
	통신시설	6.7	6.1	-0.6	0.6
	생활 인프라	6.3	5.9	-0.4	0.8
	생활 서비스	6.1	5.6	-0.5	0.7
	주택 상태	6.6	5.9	-0.7	0.9
	교통안전	6.3	6.0	-0.3	0.7
	자연재해 안전	6.7	6.2	-0.5	0.6
	범죄 안전	6.8	6.4	-0.4	0.6
	적은 환경오염	6.0	6.1	0.1	0.4
	정돈된 환경·경관	6.3	6.2	-0.1	0.5
	에너지 비용 절감	5.4	5.4	0.0	0.4
경제·일자리	소득 기회	5.1	4.5	-0.6	1.1
	경제여건 향상	5.1	4.6	-0.5	0.8
	농외소득(농촌만)	5.1	5.0	-0.1	-
	일자리 지원	5.0	4.7	-0.3	0.6

주1: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한 각 세부 항목의 점수에 한해 비교하였음.
2: 도·농 격차 증감폭은 값이 클수록 전년도에 비해 격차가 벌어졌음을 의미함.

○ 4대 전략 부문의 각 세부 항목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각 부문별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항목이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 전체 세부 항목 중 '분만의료 서비스(4.4점)', '문화·여가 프로그램(4.4점)', '대중교통(5.2점)', '소득 기회(4.5점)' 등 각 전략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전략 부문 내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 이들 4개 항목은 지난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시기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항목들로, 올해 조사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임을 보여준다.[9] 각 부문에서 농어촌 삶의 질 여건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분야이다.

❍ '분만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이 전체 항목 중에서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분만의료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5.7점)', '의료 서비스 범위(5.0점)', '의료 서비스 수준(5.1점)' 등의 보건의료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도시와의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가 실시되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인구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이다.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과거 조사에서도 측정하였던 문화·여가 인프라 및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고,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두드러진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부문별 문항 개편을 하였으나, '대중교통'과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항목은 이전 조사에서도 측정되었던 항목이다.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고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던 항목들임에 주목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및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

---

9) 〈부록 3〉의 '2014~2019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참고

〈표 3-9〉 2020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비교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4	5.7	-1.7
	의료 서비스 범위	7.1	5.0	-2.1
	의료 서비스 수준	6.9	5.1	-1.8
	분만의료 서비스	6.7	**4.4**	**-2.3**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2	-1.8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5	5.5	-1.0
	아동 양육·보호 지원	6.3	5.4	-0.9
	취약계층 복지 지원	6.2	5.6	-0.6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만)	-	5.9	-
	(평균)	6.8	5.2	-1.6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6.6	5.2	-1.4
	방과 후 교육 기회	6.5	5.1	-1.4
	평생교육 기회	6.1	4.7	-1.4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6.1	4.7	-1.4
	문화·여가 시설	6.2	4.6	-1.6
	문화·여가 프로그램	6.2	**4.4**	**-1.8**
	문화 공동체 활동	5.7	4.7	-1.0
	향토문화 향유	5.7	4.9	-0.8
	(평균)	6.1	4.8	-1.3
정주기반	대중교통	7.1	**5.2**	**-1.9**
	통신시설	7.6	6.1	-1.5
	생활 인프라	7.3	5.9	-1.4
	생활 서비스	7.3	5.6	-1.7
	주택 상태	6.7	5.9	-0.8
	교통안전	6.5	6.0	-0.5
	자연재해 안전	7.0	6.2	-0.8
	범죄 안전	6.7	6.4	-0.3
	적은 환경오염	6.6	6.1	-0.5
	정돈된 환경·경관	6.6	6.2	-0.4
	에너지 비용 절감	6.1	5.4	-0.7
	(평균)	6.9	5.9	-1.0
경제·일자리	소득 기회	5.6	**4.5**	**-1.1**
	경제여건 향상	5.3	4.6	-0.7
	농외소득(농촌만)	-	5.0	-
	농어촌관광(도시만)	5.2	-	-
	일자리 지원	5.5	4.7	-0.8
	여성·다문화 일자리(농촌만)	-	4.8	-
	(평균)	5.5	4.6	-0.9

주: 각 부문의 평균 점수와 세부항목의 도·농간 차이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주요 정책 분야별 중요도 조사 결과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7개 범주로 묶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묻는 문항의 응답 결과는 〈표 3-10〉과 같이 나타난다.

-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2순위 항목과의 비율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주민이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중요성을 우선으로 꼽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앞서 살펴보았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점수에 비추어볼 때, 도·농 간 점수 격차가 심각한 보건의료 분야와 농어촌 주민의 평균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경제·일자리 분야에 대해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 여건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10〉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단위: %)

구분		보건의료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복지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계
도시 지역 (n=793)	비율	28.2	15.8	26.1	10.0	7.7	6.1	6.2	100.0
	순위	1	3	2	4	5	7	6	-
농어촌 지역 (n=2,219)	비율	**44.3**	15.3	9.9	14.2	7.5	6.2	2.7	100.0
	순위	1	2	4	3	5	6	7	-

3.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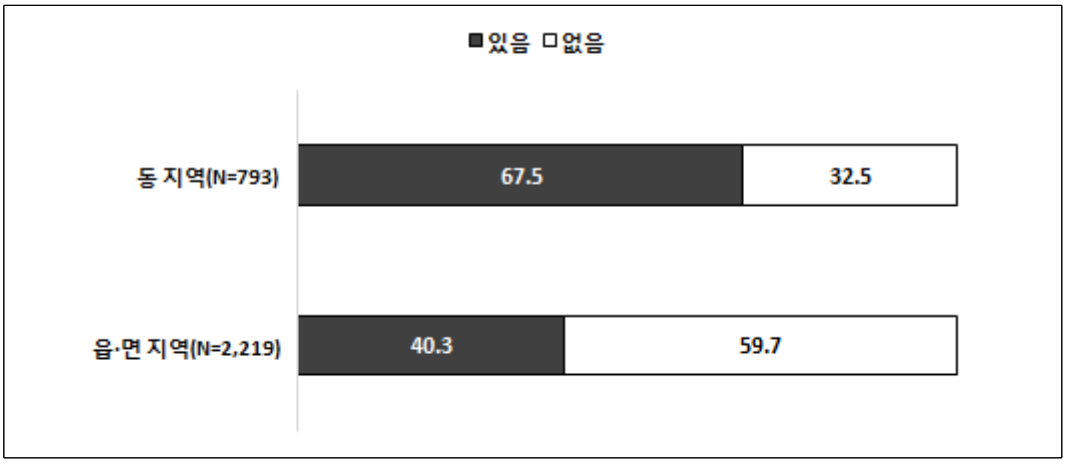
❍ 타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은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의 정주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지표가 된다. 때문에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을 각각 묻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도시 주민의 이주 의향이 농어촌 주민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 농어촌 주민 중에서는 40.3%가 타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을 나타내는 데 반해 도시 주민 중에서는 67.5%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림 3-3〉 도시·농어촌 주민 이주 의향 조사 결과

(단위: %)



❍ 도시와 농어촌 주민 모두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이주 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 중 66.5%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도시 주민의 65.4%가 다른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나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 마을로'로 응답하여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도시 주민의 경우가 19.7%로, 농어촌 주민 응답률 21.9%보다 낮다.

〈표 3-11〉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

(단위: %)

구분	도시 주민 (n=535)	농어촌 주민 (n=895)
도시로	65.4	66.5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 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15.0	11.6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17.8	18.3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 마을로	1.9	3.6
합계	100.0	100.0

❍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이 각자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주민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에 열악한 환경, 충분치 않은 소득 기회, 열악한 교통 여건 및 문화·여가 인프라 등을 꼽았다.

- 다양한 이주 희망 사유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18.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득 기회가 마땅치 않다(11.3%)', '자녀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10.6%)', '교통이 불편하다(10.3%)' 순으로 나타났는데, 1, 2위 간 격차가 다소 뚜렷했다.
- 도시에서 주요 사유로 꼽는 주택 문제와 가족·직장 등의 사유는 농어촌 주민이 불편하다고 꼽는 여건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반대로 교통 문제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의 주요 이주 희망 사유도 도시 주민의 응답률은 적게 나타나 도시와 농어촌 각 지역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여건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이주하려는 이유	응답 비율(%)	
	도시 주민 (n=535)	농어촌 주민 (n=895)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19.8	8.1
(개인 희망이 아닌)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14.2	9.6
교통이 불편하다	11.4	10.3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소득 기회가 마땅치 않다	9.9	11.3
자녀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7.3	10.6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6.5	9.7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4.9	2.1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3.2	1.6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2.4	18.0
난방비가 많이 든다	2.1	2.2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1.7	3.4
마을에 (교류하고 지낼 만한) 사람이 없다	1.5	2.0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1.1	1.0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1.1	0.4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0.9	3.4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0.7	2.0
태풍·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0.6	0.9
기타	10.7	3.2
합계	100.0	100.0

4. 소결

❍ 거주 지역의 발전 전망을 제외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양호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측정된다.

- 거주 지역의 발전 전망을 나타내는 두 문항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평가는 전년도보다 하락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전년도 점수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 높았다.
- 주관적 웰빙 지수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농어촌 주민이 더 양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주관적 웰빙 지수의 격차는 전년도에 비해 근소하게 줄어든 0.6점 차이다.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등을 묻기 위해 올해 조사부터 신규로 측정하는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에 따른 각 정책 부문별 구체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 보건·복지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과거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올해 조사에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곳은 보건·복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대폭 하락하여 도·농 만족도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것을 볼 때,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평가가 도시 주민에 비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러한 여건 만족도 하락 요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특히 산부인과 서비스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및 문화·여가 인프라,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두드러진다는 점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길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은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열악한 환경, 충분치 않은 소득 기회, 불편한 교통 여건 및 문화·여가 인프라의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 이러한 주요 이유는 도시·농어촌 주민의 각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특히 부각되는 분야와 일치한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여건이 농어촌 주민을 떠나게 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특성

1. 분석 개요

○ 농어촌 지역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점수 차이와 이주 의향을 비교하였다.

- 농어촌 지역 응답자 2,219명의 연령, 농림어업 종사 여부 및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삶의 질 기본계획 각 정책 부문의 세부 항목 여건 만족도 차이를 도출하고, 그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농어촌 지역 유형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와 이주 의향 비교하였다.

- 작년도 조사에서는 농촌 지역을 읍·면으로 구분하고, 만족도의 읍·면 간 만족도 점수의 격차를 비교하였다.
- 올해 조사에서는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읍·면 소재지', '소재지와 떨어진 평야 농촌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 등 농어촌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 유형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지역 유형 구분에 따른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고, 각 여건에 대한 수요 차이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분석

2.1.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여건 만족도

□ 보건·복지 부문

○ 보건·복지 부문의 각 항목별 여건에 대해서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 연령층 응답자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

- 특히 젊은 연령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산부인과 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이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열악하게 느끼고 있다.
- 또한 이들이 느끼는 농어작업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점수 역시 다른 연령층과의 격차가 크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젊은 연령층에서는 농어작업 안전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새로이 농어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젊은 연령층에게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 농어업 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 복지 서비스 여건을 나타내는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항목에 대해서 농어업인 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특히 '취약계층 복지 지원'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격차가 0.7점으로 가장 컸다.

○ 귀농·귀촌인과 토박이 주민 간 만족도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보건의료 여건에 대해서 귀농·귀촌인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보건의료 여건에 해당하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귀농·귀촌인이 더 낮게 평가했다.
- 특히 '분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4.1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농어업인	그 외 직업	귀농·귀촌인	아님
의료 서비스 접근성	5.6	6.1	5.5	5.4	5.9	5.4	5.7
의료 서비스 범위	4.6	5.3	4.9	4.9	5.0	4.8	5.0
의료 서비스 수준	4.7	5.3	5.0	5.0	5.1	4.9	5.1
분만 의료 서비스	**3.8**	4.6	4.6	4.7	4.3	**4.1**	4.5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4.2**	5.2	5.7	5.7	4.9	5.1	5.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4.9	5.6	5.8	5.8	5.3	5.5	5.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0	5.6	5.4	5.5	5.3	5.4	5.4
취약계층 복지 지원	4.9	5.7	5.9	6.0	**5.3**	5.8	5.6
농어작업 안전	**4.0**	6.0	6.0	5.9	-	5.8	6.0
평균	4.6	5.5	5.4	5.4	5.1	5.2	5.3

□ 교육·문화 부문

❍ 60대 이상, 농어업인 종사자,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의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 60대 이상 고령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4.4점)',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4.3점)', '문화·여가 시설(4.1점)', '문화·여가 프로그램(4.0점)'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다.
- 이는 고령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평생교육 서비스 및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여가 활동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 아울러 귀농·귀촌인이 아닌 토박이 주민 또는 농어업인이 이 다른 집단 주민에 비해 교육·문화 인프라를 접할 수 있는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교육·문화 여건 전반에 대한 농어업인, 토박이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

- '문화 공동체 활동' 항목에 대한 농어업인 주민의 평가가 그 외 직업군 종사자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것을 제외하면, 교육·문화 여건에 대한 평가는 농어업인 종사자, 토박이 주민에게서 더 낮게 나타난다.
- 농어업인 및 기존 농어촌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 특성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농어업인	그 외 직업	귀농·귀촌인	아님
공교육 수준	5.2	5.5	5.0	5.0	5.4	5.4	5.2
방과 후 교육 기회	5.1	5.4	4.7	4.7	5.3	5.1	5.0
평생교육 기회	4.7	5.1	**4.4**	4.4	4.9	4.9	4.7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4.8	5.0	**4.3**	4.3	4.9	4.9	4.6
문화여가 시설	4.6	5.0	**4.1**	4.1	4.8	4.7	**4.5**
문화여가 프로그램	4.4	4.8	**4.0**	4.0	4.7	4.7	**4.4**
문화 공동체 활동	4.4	4.9	4.6	4.7	4.6	4.8	4.6
향토문화 향유	4.8	5.2	4.7	4.7	5.1	5.1	4.9
평균	4.8	5.1	4.5	4.5	5.0	5.0	4.7

□ 정주기반 부문

❍ 젊은 연령층 주민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을 더욱 열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대중교통'에 대한 20~30대 연령층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4.5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 1.0점 가량 밑돌고 있다.

❍ 60대 이상 고령층, 농어업인 집단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각각의 두 집단에서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비교집단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 고령 주민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이와 같은 여건에 불편하고 느끼는 원인을 파악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4-3〉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농어업인	그 외 직업	귀농·귀촌인	아님
대중교통	**4.5**	5.4	5.5	5.5	5.1	5.0	5.3
통신시설	6.3	6.6	**5.5**	**5.5**	6.5	6.1	6.1
생활 인프라	6.0	6.3	**5.5**	**5.5**	6.2	5.6	5.9
생활 서비스	5.7	6.1	**5.1**	**5.2**	5.9	5.4	5.7
주택 상태	5.9	6.3	5.6	5.6	6.1	6.0	5.9
교통안전	5.6	6.2	6.1	6.2	6.0	6.0	6.0
자연재해 안전	5.9	6.4	6.2	6.2	6.2	5.9	6.2
범죄 안전	6.1	6.6	6.5	6.5	6.4	6.5	6.4
적은 환경오염	5.5	6.2	6.2	6.2	6.0	6.2	6.0
정돈된 환경·경관	5.9	6.3	6.3	6.3	6.2	6.3	6.2
에너지 비용 절감	5.1	5.5	5.5	5.5	5.4	5.4	5.4
평균	5.7	6.2	5.8	5.8	6.0	5.9	5.9

□ 경제·일자리 부문

❍ 경제·일자리 여건에 대해서 고령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만족도가 비교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부문 중 농어촌 지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제·일자리 부문의 세부 문항별 만족도 점수는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다른 문항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주민 특성에 큰 차이 없이 농어촌 주민 전반적으로 해당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실제로 모든 집단에서 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절반인 5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측정된 여러 점수 중 60대 이상 연령층 고령 주민의 '소득기회'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경제 활동 여건에 대한 농어업 종사자의 만족도도 그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 고령 주민의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4-4〉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농어업인	그 외 직업	귀농·귀촌인	아님
소득기회	4.5	4.8	**4.2**	4.2	4.6	4.5	4.5
경제여건 향상	4.6	4.8	4.4	4.5	4.7	4.7	4.6
농외소득	5.2	5.1	4.7	4.7	5.1	5.0	5.0
일자리 지원	4.6	4.8	4.5	4.6	4.7	4.7	4.7
여성·다문화 일자리	4.6	5.0	4.8	4.8	4.8	5.0	4.8
평균	4.7	4.9	4.5	4.6	4.8	4.8	4.7

2.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주 의향 및 주요 만족도 요인

□ 인구 통계적 특성 따른 이주 의향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주 희망 비율은 줄어든다.

- 20~30대 젊은 연령층 응답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74.9%다. 40~50대에서는 52.0%가 이주를 희망하며, 6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9.0%만 이주를 희망한다.

❍ 농어업인은 다른 직군에 종사하는 주민보다 이주 의향이 낮다.

- 농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6.6%에 불과해, 60.7%가 이주를 희망하는 다른 직군 종사자에 비해 그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

❍ 귀농·귀촌인과 토박이 주민 간 이주 의향 차이는 적다.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농어촌 주민 응답자 비율 차이는 1.3%p에 불과해,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 농어촌 주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주 희망 응답 비율

(단위: %)



□ 각 인구 통계적 특성별 주요 만족도 요인

○ 50대 이하 응답자는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 응답자는 문화·여가 인프라 및 교육 여건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 연령대별 주요 만족도 점수 하위 다섯 개 항목을 살펴본 결과, 20~30대, 40~50대 두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분만 의료 서비스'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꼽았다.
- 60대 이상 응답자의 만족도 점수 하위 다섯 개 항목 중 네 개 항목이 교육·문화 여건에 해당했다.

- 그밖에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은 '농어작업 안전'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40대~50대는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등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부족함을 느꼈다. 60대 이상 고령 응답자에게서도 '소득기회'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5〉 연령대별 주요 만족도 하위 항목

만족도 부진 순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1	분만 의료 서비스	분만 의료 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2	농어작업 안전	소득기회	문화여가 시설
3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경제여건 향상	소득기회
4	문화 공동체 활동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	평생교육 기회

❍ 농림어업 종사자는 교육·문화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았던 반면 그 외 직업군에 종사하는 주민은 산부인과 서비스와 경제 활동 여건에 대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에게 만족도가 낮은 다섯 개 항목 중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평생교육 기회' 등 교육·문화 부문에서 네 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세 번째 순위로 낮게 평가한 여건은 '소득기회'였다.
- '소득기회'에 대한 평가는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 외 직업군 응답자에게서도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그밖에 '경제여건 향상'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4-6〉 농림어업 종사여부별 주요 만족도 하위 항목

만족도 부진 순위	농림어업에 종사	그 외 직업군에 종사
1	문화여가 프로그램	분만 의료 서비스
2	문화여가 시설	소득기회
3	소득기회	문화 공동체 활동
4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5	평생교육 기회	경제여건 향상

❍ 귀농·귀촌한 주민은 경제 활동 여건이 주로 부족하다고 평가한 한편, 기존 주민들에게서는 경제 활동 및 문화·여가 인프라 여건이 함께 저조한 분야로 꼽혔다.

- 귀농·귀촌한 응답자가 가장 열악하다고 느낀 다섯 개의 여건 중 세 개 항목은 '소득기회', '일자리 지원', '경제여건 향상' 등 경제·일자리 부문에 속했다.
- 한편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것은 '분만 의료 서비스' 항목이다.
- 그 외 직업군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설',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등 문화·여가 인프라 및 경제 활동 여건이 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표 4-7〉 귀농·귀촌 여부별 주요 만족도 하위 항목

만족도 부진 순위	귀농·귀촌함	아님
1	분만 의료 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2	소득기회	소득기회
3	일자리 지원	분만 의료 서비스
4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여가 시설
5	경제여건 향상	경제여건 향상

3. 농어촌 지역 유형별 분석

3.1. 농어촌 지역 유형별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읍 지역에서 근소하게 높다.

- 특히 하위 항목인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의 면 지역 평가가 읍 지역보다 떨어져, 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망을 읍 지역 주민에 비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주관적 웰빙 지수와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는 오히려 면 지역에서 높다.

- 주관적 웰빙 지수의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지표인 '어제 근심 걱정 정도' 및 '어제 우울 정도'는 읍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이웃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는 면 지역에서 더 높아, 결과적으로 면 지역의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가 읍 지역을 능가한다.

❍ 원격 산간 및 어촌 지역 주민의 전반적 만족도는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주민의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은 5개 지역 중 가장 낮다.
- 주관적 웰빙 지수 중 부정적 지표인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와 '어제 우울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반면 해당 지역에서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및 '어제 행복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저조하다.

〈표 4-8〉 지역 유형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읍·면		마을 유형				
	읍	면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읍·면 소재지	소재지와 떨어진 평야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평균)	6.1	6.0	6.5	6.0	6.0	5.6	5.5
행복감	6.1	6.3	6.2	6.3	6.2	5.9	5.1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6.1	6.4	6.2	6.3	6.4	6.0	5.6
마을 발전 전망	6.1	**5.4**	6.8	5.5	5.5	**5.0**	5.6
시·군 발전 전망	6.3	**5.7**	6.9	5.8	5.7	**5.3**	5.8
주관적 웰빙 지수(평균)	5.6	6.0	5.6	5.9	5.9	5.5	5.0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6.0	6.2	6.1	6.2	6.1	5.8	**4.9**
어제 행복 정도	6.0	6.2	6.1	6.2	6.0	5.8	**4.9**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	**5.4**	4.5	5.6	4.8	4.5	5.0	**5.6**
어제 우울 정도	**4.7**	4.0	4.5	4.2	4.1	4.7	**5.1**
요즘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 가치 정도	5.9	6.0	5.8	6.0	5.8	5.6	5.9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평균)	5.6	6.0	5.3	6.0	6.0	5.8	5.5
마을 소속감	5.6	**6.2**	5.3	6.1	6.0	5.9	5.1
시·군 소속감	5.6	**6.1**	5.3	6.0	6.0	5.8	5.2
대인 관계	5.8	**6.5**	5.4	6.3	6.6	6.2	6.2
정책 신뢰도	5.3	5.4	5.1	5.4	5.5	5.3	5.3

3.2. 농어촌 지역 유형별 여건 만족도

□ 보건·복지 부문

○ 가장 열악하다고 느끼는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항목은 '분만 의료 서비스' 항목이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 항목에서 읍·면 만족도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읍·면 지역 공통적으로 '분만 의료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1.0점으로, 부문 전체의 평균 격차 0.3점을 크게 웃돌고 있다.

❍ 원격 산간 지역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에 대해 가장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다.

-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에 대해 근교 지역이나 소재지에 비해 원격 지역 마을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그 중에서도 원격 산간 지역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4.4점)', '의료 서비스 범위(4.0점)', '의료 서비스 수준(3.9점)', '분만 의료 서비스(2.9점)' 항목에서 보건·복지 부문의 해당 지역 만족도 평균 점수 4.4점 이하로 측정되었다.

❍ 원격 어촌 지역 주민은 '농어작업 안전' 항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에서 '농어작업 안전'에 관한 만족도 점수는 3.8점으로, 다른 지역의 만족도 점수에 비해 최소 1.1점에서 최대 2.4점 낮게 나타난다.
- 어업인이 어구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지침과 홍보,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어선원과 어선 재해 보장 보험을 개선하고 가입률을 확대해 어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로부터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원격 산간 지역과 어촌 지역에서의 '분만 의료 서비스' 여건이 다른 유형의 지역에 비해 특히 열악한 것으로 측정된다.

-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에서 2.9점, 어촌 지역에서 3.6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난다.
- 대도시 및 농촌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격 지역이면서 산간과 어촌 지역이라는 지형적 불리함까지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9〉 지역 유형에 따른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읍·면			마을 유형				
	읍	면	읍·면 격차 (읍-면)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읍·면 소재지	소재지와 떨어진 평야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	6.3	5.3	1.0	6.7	5.7	5.2	4.4	5.1
의료 서비스 범위	5.3	4.7	0.6	5.9	4.8	4.9	4.0	4.3
의료 서비스 수준	5.4	4.8	0.6	6.0	4.9	5.1	3.9	4.1
분만 의료 서비스	4.6	4.3	0.3	5.1	4.5	4.0	2.9	3.6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5.2	5.2	0.0	5.4	5.2	5.1	4.8	4.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6	5.4	0.2	5.7	5.5	5.5	5.0	4.6
아동 양육보호 지원	5.6	5.2	0.4	5.9	5.4	5.2	4.7	4.6
취약계층 복지 지원	5.6	5.6	0.0	5.6	5.6	5.6	5.2	4.7
농어작업 안전	6.1	5.9	0.2	5.6	6.0	6.2	4.9	3.8
평균	5.5	5.2	0.3	5.8	5.3	5.2	4.4	4.3

□ 교육·문화 부문

❍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읍·면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다.

- 교육·문화 부문 전 분야의 여건이 면 지역에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문화·여가 시설'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읍·면 간 격차가 0.8점으로 가장 크다. 문화·여가 인프라를 의미하는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도·농 격차 역시 크게 나타난 바 있다.

❍ 원격 산간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지역들보다 떨어진다.

-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시설(3.4점)'과 '문화·여가 프로그램(3.2점)'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지역의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평균 점수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다른 유형 지역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0〉 지역 유형에 따른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읍·면			마을 유형				
	읍	면	읍·면 격차 (읍-면)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읍·면 소재지	소재지와 떨어진 평야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
공교육 수준	5.5	5.1	0.4	5.9	5.2	5.1	4.5	5.4
방과 후 교육 기회	5.4	4.8	0.6	5.8	5.0	4.8	4.3	5.4
평생교육 기회	5.1	4.5	0.6	5.3	4.7	4.5	3.8	4.6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0	4.4	0.6	5.4	4.6	4.4	3.8	4.4
문화여가 시설	5.0	4.2	**0.8**	5.4	4.5	4.3	**3.4**	4.5
문화여가 프로그램	4.9	4.1	**0.8**	5.3	4.4	4.0	**3.2**	4.3
문화 공동체 활동	4.8	4.5	0.3	5.0	4.6	4.7	4.1	4.4
향토문화 향유	5.3	4.7	0.6	5.4	4.9	5.0	4.6	4.3
평균	5.1	4.5	0.6	5.4	4.7	4.6	4.0	4.7

□ 정주기반 부문

○ 정주기반 부문 중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항목의 읍·면 격차가 가장 뚜렷하며, 이들 여건은 근교 지역에 비해 소재지 마을이나 원격지에서도 눈에 띄게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정주기반 부문에 대한 읍·면 만족도 점수 격차가 평균 0.5점인데 반해 '통신시설'과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항목의 격차가 1.0점 안팎으로 크게 나타난다.
- 근교 지역에서 해당 여건들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각각 7.3점, 7.2점, 6.7점인데 반해 읍·면 소재지와 원격 지역에서는 크게 떨어진다. 특히 같은 항목에 대한 산간 지역에서의 만족도 점수는 4.8점, 4.5점, 4.4점으로 그 차이가 크다.

○ 원격 산간 지대의 '주택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측정된다.

-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의 '주택 상태' 항목 만족도 점수는 4.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근교 지역의 7.1점보다 2.3점 낮고, 다른 지역들과도 0.5점 이상 차이가 난다.

○ 근교 지역에서도 '대중교통'과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은 정주기반 부문의 다른 여건들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다.

- ‘통신 시설’, ‘생활 인프라’, ‘주택 상태’ 등 근교 지역의 만족도 점수는 평균 6.6점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대중교통(5.6점)’과 ‘에너지 비용 절감(5.8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교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정주기반 부문 서비스 분야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4-11〉 지역 유형에 따른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읍·면			마을 유형				
	읍	면	읍·면 격차 (읍-면)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읍·면 소재지	소재지와 떨어진 평야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
대중교통	5.5	5.1	0.4	**5.6**	5.3	4.9	4.2	5.4
통신시설	6.6	5.7	**0.9**	**7.3**	6.0	5.7	**4.8**	5.4
생활 인프라	6.4	5.5	**0.9**	**7.2**	5.9	5.3	**4.5**	5.6
생활 서비스	6.3	5.1	**1.2**	**6.7**	5.6	5.1	**4.4**	4.6
주택 상태	6.3	5.6	0.7	**7.1**	5.7	5.9	**4.8**	5.3
교통안전	6.2	5.9	0.3	6.3	5.9	6.2	5.8	5.5
자연재해 안전	6.4	6.0	0.4	6.8	6.0	6.4	5.6	5.6
범죄 안전	6.6	6.3	0.3	6.8	6.3	6.8	6.5	5.9
적은 환경오염	6.1	6.0	0.1	6.2	6.0	6.0	6.1	5.7
정돈된 환경·경관	6.3	6.1	0.2	6.7	6.1	6.3	5.9	5.2
에너지 비용 절감	5.6	5.3	0.3	**5.8**	5.4	5.3	4.5	5.1
평균	6.2	5.7	0.5	6.6	5.8	5.8	5.2	5.4

□ 경제·일자리 부문

❍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읍·면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소득기회’다.

-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회 여건은 읍·면 지역 모두 5.0점 미만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당 항목에 대한 읍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4.9점인데 반해 면 지역에서는 4.2점으로, 면 지역에서 그 상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

❍ 원격 산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은 다른 유형의 지역과 비교하여 대체로 가장 열악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경제·일자리 여건 중 ‘여성·다문화 일자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항목에 대한 원격 산간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모두 4.0점 미만으로 가장 낮다.

〈표 4-12〉 지역 유형에 따른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읍·면			마을 유형				
	읍	면	읍·면 격차 (읍-면)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읍·면 소재지	소재지와 떨어진 평야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
소득기회	4.9	4.2	0.7	5.3	4.5	4.0	3.8	4.6
경제여건 향상	4.9	4.4	0.5	5.3	4.6	4.2	3.7	5.2
농외소득	5.3	4.7	0.6	5.5	5.1	4.3	3.7	4.9
일자리 지원	4.9	4.5	0.4	5.2	4.8	4.1	3.6	4.5
여성·다문화 일자리	5.0	4.7	0.3	5.2	4.8	4.5	4.3	4.1
평균	5.0	4.5	0.5	5.3	4.8	4.2	3.8	4.7

3.3. 농어촌 지역 구분에 따른 이주 의향 및 주요 만족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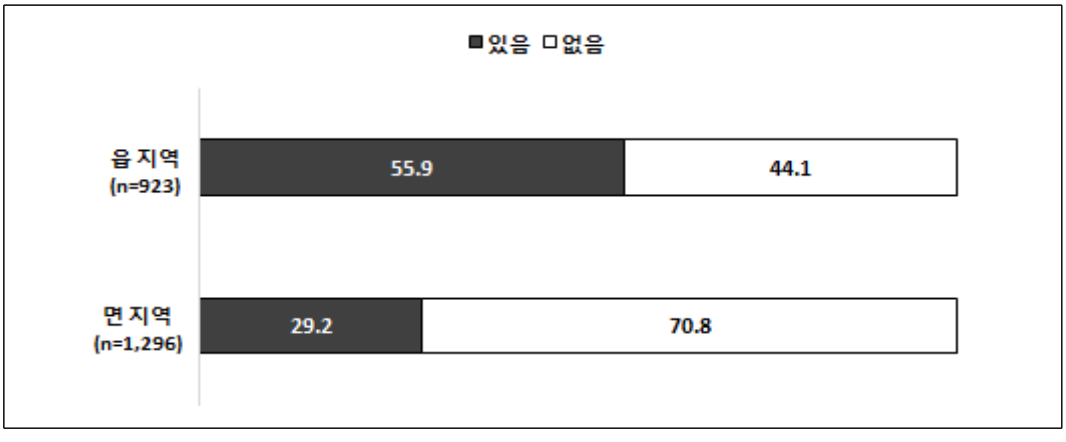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 구분에 따른 이주 의향

○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을 읍·면 지역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읍 지역에서의 이주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

- 읍 지역 거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9%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반면, 면 지역에서는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림 4-2〉 농어촌 주민 이주 의향 조사 결과(읍·면 구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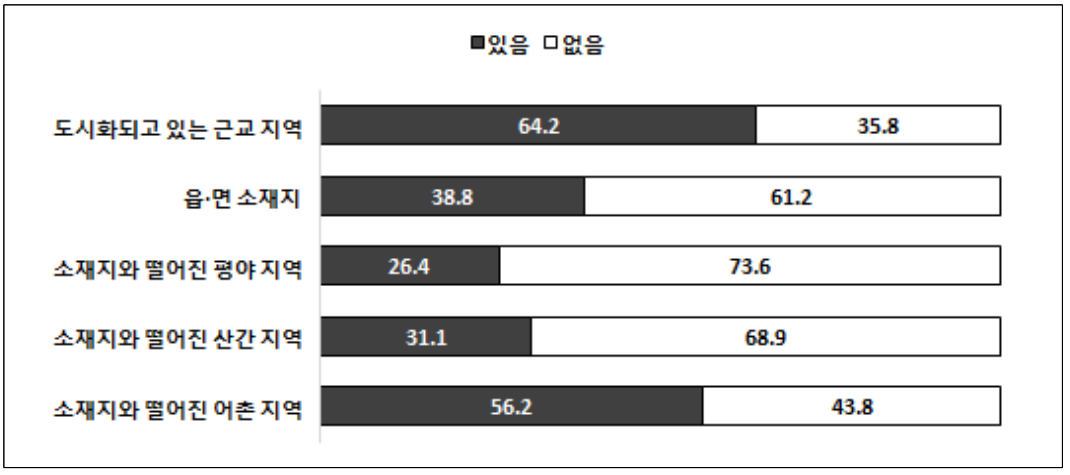


❍ 근교 지역과 원격 어촌 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주민의 응답자 중 64.2%가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원격 어촌 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응답자도 과반을 차지해 그 뒤를 잇고 있다.
- 읍·면 소재지와 원격 평야, 산간 지역에서는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원격 평야 지역에서 26.4%로 가장 낮다.

〈그림 4-3〉 농어촌 주민 이주 의향 조사 결과(지역 유형 구분)

(단위: %)



□ 지역 유형별 주요 만족도 요인

❍ 읍·면 지역 간 여건 만족도 점수 격차가 가장 큰 다섯 개의 항목 중 세 개는 정주기반 부문에 해당해, 기본적인 정주 생활 인프라의 읍·면 격차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 '생활 서비스',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등 정주기반 부문의 세 항목이 읍·면 지역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1, 3, 4순위에 해당한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 차이도 1.0점으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인프라 중 하나인 '문화·여가 시설' 항목 역시 읍·면 지역에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만족도 점수가 저조하게 측정된 가운데, 그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3〉 읍·면 만족도 격차 상위 5개 세부 항목

(11점 척도)

만족도 격차 순위	세부 항목명	만족도 점수		
		읍	면	읍·면 격차 (읍-면)
1	생활 서비스	6.3	5.1	1.2
2	의료 서비스 접근성	6.3	5.3	1.0
3	통신시설	6.6	5.7	0.9
4	생활 인프라	6.4	5.5	0.9
5	문화여가 시설	5.0	4.2	0.8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지역 유형에 따라 주민들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분야가 상이한 특징이 드러난다.

- 근교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문화 공동체 활동', '문화·여가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과 '여성·다문화 일자리' 등 문화 및 경제 활동 여건에 대해 미흡하게 평가했다.
- 원격 어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네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낮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 원격 평야 지역에서는 '소득기회', '일자리 지원', '경제여건 향상' 등 경제 활동 여건에 대해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 원격 어촌 지역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분만 의료 서비스' 항목 외에도 '농어작업 안전',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수준' 등 보건의료 및 안전 분야 여건에서 미흡함을 느끼고 있다.

〈표 4-14〉 지역 유형별 만족도 하위 5개 세부 항목

만족도 부진 순위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읍·면 소재지	소재지와 떨어진 평야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
1	문화 공동체 활동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	분만 의료 서비스	분만 의료 서비스
2	분만 의료 서비스	소득기회	분만 의료 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농어작업 안전
3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시설	소득기회	문화여가 시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4	여성·다문화 일자리	분만 의료 서비스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서비스 수준
5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경제여건 향상	경제여건 향상	여성·다문화 일자리

4. 소결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분만 의료 서비스 및 응급 의료 서비스 여건은 젊은 연령층,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이 농촌을 떠나게 되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각 여건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50대 이하 연령층,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은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 또한 4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은 농어작업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 연령대가 낮은 집단, 농어업인 외 다른 직군에 종사하는 집단이 농어촌을 떠나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정주 여건은 잠재적인 지역 이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고령 주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경제활동 여건과 교육·문화 기회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꼽았으며, 귀농·귀촌한 주민은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 주민의 유형별 상이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주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면 지역은 읍 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유형에 따라 여건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의 읍·면 격차 상위 5개 항목 중 3개가 정주 생활 부문에 해당하며, 그 외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화·여가 시설 항목이 포함되었다.
- 농어촌 지역 유형별 여건 만족도 하위 5개를 살펴보면 근교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문화 및 경제 활동 여건, 원격 평야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 여건, 원격 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의료 및 안전 분야에서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두드러진다.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각 여건에 따른 읍·면 격차가 나타나는 분야를 고려하되, 지역 유형에 따라 미흡한 여건에 대해 차별적인 개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요약

❍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거주 지역의 발전 전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중 거주 지역에서의 발전 전망을 묻는 두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평가는 전년도보다 하락하면서, 도시 주민의 평가를 밑돌았다.
- 이를 제외한 행복감 및 만족감, 주관적 웰빙 지수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대인관계, 정책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조사부터 추가된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역시 농어촌 주민의 평가가 도시 주민보다 높았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정책 분야들에 대한 정주 여건은 실제 이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만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정책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로, 삶의 질과 관련한 7개의 정책 분야 중 44.3%의 주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하지만 실제로

분만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낮으며,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 충분한 소득 기회 등 경제·일자리 여건은 농어촌 주민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각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 점수는 보건·복지 5.2점, 교육·문화 4.8점, 정주기반 5.9점, 경제·일자리 4.6점으로, 경제 활동과 관련한 여건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낮다.

❍ 도시 지역과 비교가 가능한 30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다.

- 4개의 전략 부문 중 여건에 대한 도·농 만족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 부문이다. 보건·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이전 조사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여전히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교가 가능한 전체 세부 항목 중 '분만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2.3점으로 가장 크다.
- 보건·복지 부문의 여건 외에 '대중교통'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기초생활 서비스와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여건도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여건, 불충분한 소득 기회와 자녀 교육 여건, 불편한 교통 등은 주민이 지역을 떠나게 하는 잠재적인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농어촌 주민 중 40.3%가 이주를 희망하며, 그 중 66.5%는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도시와 농어촌 주민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상이하며, 농어촌 주민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18.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득 기회가 마땅치 않다(11.3%)', '자녀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10.6%)', '교통이 불편하다(10.3%)' 순으로 그 이유를 꼽았다.
- 농어촌 주민의 이주 희망 사유는 앞서 살펴본 각 여건에 대한 만족도 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농어촌 주민의 연령대, 농어업 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각 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가 상이하다.

- 젊은 연령층 주민과 직접인 관련성이 있는 '분만 의료 서비스'의 40세 미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3.8점으로 보건·복지 부문에서 가장 낮다. 또한 이들 20~30대 주민은 '신속한 응급 서비스'와 '농어작업 안전',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 60대 이상 고령 주민의 교육·문화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보다 떨어진다.
- 농어업인 종사자는 그 외 직군에 종사하는 주민에 비해 교육·문화, 정주기반 부문의 여건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진다.
-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 의향이 강하며, 농어업인에 비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의 이주 의향이 더 높다. 젊은 연령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세부 항목은 주로 보건의료, 문화 인프라 분야에 해당하며, 농어업 비종사자는 문화 활동, 경제 활동 여건의 미흡함을 느끼고 있다.
- 귀농·귀촌인은 경제 활동 여건이 주로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기존 주민들은 이에 더해 문화·여가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면 지역이 읍 지역보다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 유형에 따른 각 여건별 만족도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난다.

- '생활 서비스' 항목에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격차가 1.2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비롯해 생활 인프라에 대한 격차가 두드러지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격차도 크다.
- 근교 농어촌 지역에서는 문화 및 경제 활동 여건, 원격 평야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 여건, 원격 어촌 지역에서는 보건 의료 및 안전 분야에서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다. 원격 산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2. 시사점

❍ 정주 여건의 도·농 만족도 격차가 극심한 분야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올해 조사에서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으로의 전환에 따라 각 정책 부문 및 세부 항목에 대한 문항을 개편하면서 과거 조사 결과와의 직접적인 만족도 점수 비교가 어려우나, 일부 비교가 가능한 세부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모든 여건에서 도시 지역보다 불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어촌 주민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고 도·농 격차가 다시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나타내는 물리적 지표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조사에서 보건·복지와 교육여건 부문의 핵심항목 이행실태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부진하며, 실제로 본 조사에서 주민들이 해당 부문 항목에 평가하는 만족도가 저조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처럼 격차가 특히 심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또한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정서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해보다 종합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계층별, 지역별 상이한 수요에 부합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잠재적인 지역 이탈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젊은 연령층, 농어업 비종사자, 또는 근교 농촌 지역과 원격 어촌 지역의 주민의 이주 의향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각 인구 특성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업 인구를 벗어난 다각적인 개선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인구 이탈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젊은 연령층은 특히 분만 의료 및 응급 의료 서비스와 농어작업 안전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부인과 및 응급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농어작업에 대한 미

숙함이 농어촌 지역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원격 산간 지역에는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고 원격 어촌 지역에는 어작업과 관련한 보건의료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읍·면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각 농어촌 지역 특성에 따라 미흡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유기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1. 2020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 처리 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 김민석 연구원(061-820-2078)

*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202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조직입니다.

LOC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AGE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만 19세 미만 면접 중단
		만( )세 (※ 만 19세 이상만 응답)

Q01.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행정리)

Q02. 지금 살고 계신 곳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농어촌 주민에게만 질문)

①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② 읍·면 소재지

③ 소재지와 떨어진 평야 농촌 지역　　④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⑤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

Q03. 현재의 마을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Q04. **[주관적 웰빙지수]** 다음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⓪ ----⑤---- ⑩	(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⓪ ----⑤---- ⑩	(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⓪ ----⑤---- ⑩	(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⓪ ----⑤---- ⑩	(　)점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⓪ ----⑤---- ⑩	(　)점

Q05. **[전반적인 만족도]**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구분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행복감]	나는 지금 행복하다.	⓪ ----⑤---- ⑩	(　)점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⓪ ----⑤---- ⑩	(　)점
[마을 발전 전망]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⓪ ----⑤---- ⑩	(　)점
[시군 발전 전망]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⓪ ----⑤---- ⑩	(　)점

Q06. **[공동체 및 지역사회]** 다음은 공동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구분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마을 소속감]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⓪ ----⑤---- ⑩	( )점
[시·군 소속감]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시·군 또는 읍·면)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⓪ ----⑤---- ⑩	( )점
[대인 관계]	귀하는 이웃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다고 느끼십니까?	⓪ ----⑤---- ⑩	( )점
[정책 신뢰도]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⓪ ----⑤---- ⑩	( )점

※ '마을'이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리(행정리)'범위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Q07. 다음은 살고 계신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⓪---⑤---⑩
	[의료 서비스 범위]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과목이 다양하다.	⓪---⑤---⑩
	[의료 서비스 수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양호하다.	⓪---⑤---⑩
	[분만 의료 서비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⓪---⑤---⑩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⓪---⑤---⑩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⓪---⑤---⑩
	[아동 양육·보호 지원]	아동의 양육·돌봄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⓪---⑤---⑩
	[취약계층 복지 지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⓪---⑤---⑩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종사자만 설문)	농기계·어선 사고 등 농어작업 재해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⓪---⑤---⑩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⓪---⑤---⑩
	[방과 후 교육 기회]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좋은 교육(방과 후 학교, 사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⓪---⑤---⑩
	[평생교육 기회]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하다.	⓪---⑤---⑩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⓪---⑤---⑩
	[문화·여가 시설]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⓪---⑤---⑩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⓪---⑤---⑩
	[문화 공동체 활동]	동호회, 소모임 등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⓪---⑤---⑩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향토문화 향유]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⓪---⑤---⑩
정주 기반	[대중교통]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⓪---⑤---⑩
	[통신 시설]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⓪---⑤---⑩
	[생활 인프라]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⓪---⑤---⑩
	[생활 서비스]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⓪---⑤---⑩
	[주택 상태]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⓪---⑤---⑩
	[교통안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⓪---⑤---⑩
	[자연재해 안전]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수준이 양호하다.	⓪---⑤---⑩
	[범죄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⓪---⑤---⑩
	[적은 환경오염]	쓰레기, 분뇨, 폐수,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적다.	⓪---⑤---⑩
	[정돈된 환경·경관]	마을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⓪---⑤---⑩
	[에너지 비용 절감]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⓪---⑤---⑩
경제 · 일자리	[소득기회]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⓪---⑤---⑩
	[경제여건 향상]	최근 3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⓪---⑤---⑩
	[농외소득] (농촌 지역만 설문)	특산품이나 농수산물 가공·판매, 직매장 운영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⓪---⑤---⑩
	[농어촌 관광] (도시 지역만 설문)	농어촌 지역에 즐길 수 있는 관광거리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농촌 체험,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맛집), 지역 축제 등)	⓪---⑤---⑩
	[일자리 지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⓪---⑤---⑩
	[여성·다문화 일자리] (농촌 지역만 설문)	여성 농업인 및 다문화 주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⓪---⑤---⑩

Q08. 다음의 정책부문 중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위부터 3위까지** 매겨주십시오.

설문 문항	순위
[보건의료] 필요할 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 )위
[복지] 영유아, 노인, 취약계층이 적절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 )위
[교육]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	( )위
[문화·여가] 적절한 수준의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 )위
[주거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생활 여건	( )위
[환경·경관]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된 환경 및 경관 여건	( )위
[경제·일자리] 적절한 소득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	( )위

Q09.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Q09-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Q10번 문항으로

(Q09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Q09-1,Q09-2)

Q09-1. **어디로 이사하고** 싶으십니까? ( )

① 도시로　　②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③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④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Q09-2. 말씀하신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보기]

보건·복지	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② (영유아·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교육·문화	③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④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⑤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정주기반	⑥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⑦ 교통이 불편하다
	⑧ 난방비가 많이 든다
	⑨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⑩ 생필품 구입이나 목욕탕, 미용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⑪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⑫ 태풍·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⑬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경제·일자리	⑭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소득 기회가 마땅치 않다
그 외	⑮ 마을에 (교류하고 지낼 만한) 사람이 없다
	⑯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⑰ (개인 희망이 아닌)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 ⑱ 기타: (내용: _____)

Q10. 선생님께서는 **귀농·귀촌**하셨습니까? ( )

① 그렇다 *☞ Q10-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 Q10번 문항으로*

(Q10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Q10-1. 귀농하셨습니까? 아니면 귀촌하셨습니까?

① 귀농 ② 귀촌

Q10-2. 귀농·귀촌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Q11. 선생님은 **지역사회 활동(행사·모임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

① 전혀 참여 안 한다 ②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④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다음은 개인 및 가구 관련 질문입니다.

DQ01. 선생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 )

① 기혼 ② 미혼

DQ02. 선생님의 최근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상당히 좋다 ② 양호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지 않다 ⑤ 상당히 좋지 않다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3.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원 이상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4. 현재 선생님은 **어떤 일(직업)**을 하십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을 답해주십시오.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관리직(관공서, 회사 등)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퇴직 ⑧ 무직
⑨ 기타(_____)

DQ05. 선생님 댁(본인 포함)에 **농축산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 텃밭 등 취미농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DQ06. 선생님 댁의 **주택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연립/빌라) ③ 아파트
④ 비거주용 건물 ⑤ 기타( )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7. 선생님 댁의 주택 **거주(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자가 ② 전·월세 ③ 무상
④기타( )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8. **선생님 댁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독신가구 ☞ *DQ08 문항으로*
② 1세대 가구(부부) ☞ *DQ08 문항으로*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④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⑤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⑥ 기타 (_____) ☞ *DQ07-1번 문항으로*

(DQ08 문항에서 ③~⑥에 답한 경우만)

DQ08-1. 귀 댁에는 **성인이 아닌(1~19세) 자녀나 손자녀**가 있습니까? ( )

① 없다 ☞ *DQ09번 문항으로* ② 있다 ☞ *DQ08-2번 문항으로*

(DQ08-1 문항에서 ②에 답한 경우만)

DQ08-2. **자녀의 연령대**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영유아 ② 초등학생 ③ 중·고등학생

④ 기타(_____)

DQ09. 선생님 **댁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 )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1999만원

③ 2000만원~2999만원 ④ 3000만원~3999만원 ⑤ 4000만원 이상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2. 2020년 농어촌 지역 모집단 및 조사 표본 수 비교

〈권역별 농어촌 지역의 모집단 수〉

권역	권역별 읍·면 인구 (명)			읍·면 비율 (%)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인천/경기	1,206,601	720,641	1,927,242	62.6	37.4	100.0
대전/충청	727,984	889,218	1,617,202	45.0	55.0	100.0
광주/전라	502,864	890,032	1,392,896	36.1	63.9	100.0
대구/경북	700,443	611,725	1,312,168	53.4	46.6	100.0
부산/울산/경남	661,015	691,735	1,352,750	48.9	51.1	100.0
강원/제주	355,035	352,731	707,766	50.2	49.8	100.0
전체	4,153,942	4,156,082	8,310,024	49.4	50.6	100.0

〈권역별 농어촌 지역의 조사된 표본 수〉

권역	권역별 읍·면 조사된 표본 수 (명)			읍·면 비율 (%)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읍 지역	면 지역	합계
인천/경기	153	154	307	49.8	50.2	100.0
대전/충청	213	326	539	39.5	60.5	100.0
광주/전라	199	279	478	41.6	58.4	100.0
대구/경북	152	179	331	45.9	54.1	100.0
부산/울산/경남	135	210	345	39.1	60.9	100.0
강원/제주	71	148	219	32.4	67.6	100.0
전체	923	1,296	2,219	41.4	58.6	100.0

3. 2014~2019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2014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7	5.2	-2.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9	4.8	-1.1
	취약계층 복지 지원	5.7	5.2	-0.5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7	5.3	-1.4
	(평균)	6.5	5.1	-1.4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4.8	-1.7
	평생학습 기회	5.8	4.2	-1.6
	(평균)	6.2	4.5	-1.7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	6.7	5.3	-1.4
	생활 인프라	7.3	4.5	-2.8
	생활 서비스	7.5	4.5	-3.0
	대중교통	7.6	4.9	-2.7
	(평균)	7.3	4.8	-2.5
경제활동·일자리	소득 기회	5.4	3.7	-1.7
	경제여건 향상	5.1	4.0	-1.1
	농외소득	4.4	3.9	-0.5
	(평균)	5.0	3.9	-1.1
문화·여가	여가시설	6.0	3.3	-2.7
	여가 프로그램	5.9	2.5	-3.4
	(평균)	6.0	2.9	-3.1
환경·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3	5.2	-1.1
	적은 환경오염	6.4	5.4	-1.0
	(평균)	6.4	5.3	-1.1
안전	범죄 안전	6.4	6.1	-0.3
	교통 안전	6.2	5.7	-0.5
	자연재해 안전	6.9	5.8	-1.1
	(평균)	6.5	5.9	-0.6
〈표본수〉		〈610명〉	〈1,168명〉	-

〈2015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6	6.2	-1.4
	의료 서비스 수준	7.1	5.8	-1.3
	아동 양육·보호 지원	6.5	5.6	-0.9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6.0	-0.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9	-1.1
	(평균)	6.9	5.9	-1.0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8	5.7	-1.1
	방과 후 교육 기회	6.8	5.5	-1.3
	평생학습 기회	6.5	5.3	-1.2
	(평균)	6.7	5.5	-1.2
정주생활 기반	주택 상태	6.9	6.5	-0.4
	생활 인프라	7.1	5.8	-1.3
	생활 서비스	7.4	6.1	-1.3
	대중교통	7.3	5.7	-1.6
	(평균)	7.2	6.0	-1.2
경제활동·일자리	소득 기회	5.6	4.6	-1.0
	경제여건 향상	5.7	4.9	-0.8
	농외소득	5.4	4.8	-0.6
	(평균)	5.6	4.8	-0.8
문화·여가	여가시설	6.3	4.8	-1.5
	여가프로그램	6.2	4.6	-1.6
	(평균)	6.3	4.7	-1.6
환경·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7	6.3	-0.4
	에너지 비용 절감	6.0	5.0	-1.0
	적은 환경오염	6.5	6.4	-0.1
	(평균)	6.4	5.9	-0.5
안전	범죄 안전	6.5	6.7	0.2
	교통 안전	6.4	6.3	-0.1
	자연재해 안전	7.2	6.8	-0.4
	(평균)	6.7	6.6	-0.1
〈표본수〉		〈1,269명〉	〈1,775명〉	-

〈2016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8	6.4	-1.4
	의료 서비스 수준	7.4	5.9	-1.5
	아동 양육·보호 지원	6.6	5.5	-1.1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6.0	-0.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2	6.0	-1.2
	(평균)	7.1	6.0	-1.1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8	5.6	-1.2
	방과 후 교육 기회	6.9	5.3	-1.6
	평생학습 기회	6.6	5.2	-1.4
	(평균)	6.8	5.4	-1.4
정주생활 기반	주택 상태	6.8	6.4	-0.4
	생활 인프라	7.3	6.1	-1.2
	생활 서비스	7.5	6.0	-1.5
	대중교통	7.6	5.8	-1.8
	통신 시설	7.8	6.7	-1.1
	(평균)	7.4	6.2	-1.2
경제활동·일자리	소득 기회	5.9	4.8	-1.1
	경제여건 향상	5.9	4.9	-1.0
	농외소득	5.4	4.8	-0.6
	(평균)	5.7	4.8	-0.9
문화·여가	여가시설	6.6	4.8	-1.8
	여가프로그램	6.5	4.5	-2.0
	(평균)	6.6	4.7	-1.9
환경·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6	6,2	-0.4
	에너지 비용 절감	6.1	5.1	-1.0
	적은 환경오염	6.5	6.2	-0.3
	(평균)	6.4	5.8	-0.6
안전	범죄 안전	6.8	6.7	-0.1
	교통 안전	6.6	6.4	-0.2
	자연재해 안전	7.3	7.0	-0.3
	화재 발생 대응	7.1	6.4	-0.7
	농작업 안전	6.7	5.9	-0.8
	(평균)	6.9	6.5	-0.4
〈표본수〉		〈917명〉	〈1,950명〉	-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6	6.5	-1.1
	의료 서비스 수준	7.3	5.9	-1.4
	아동 양육·보호 지원	6.7	5.7	-1.0
	취약계층 복지 지원	6.5	6.0	-0.5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1	6.0	-1.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6	5.8	-0.8
	(평균)	7.0	6.0	-1.0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8	5.7	-1.1
	방과 후 교육 기회	6.9	5.6	-1.3
	평생학습 기회	6.6	5.5	-1.1
	시설 및 교육 필요장비	7.0	6.3	-0.7
	학생 통학 어려움	7.1	6.2	-0.9
	(평균)	6.9	5.9	-1.0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	6.8	6.6	-0.2
	생활 인프라	7.2	6.3	-0.9
	생활 서비스	7.4	6.4	-1.0
	대중교통	7.3	6.0	-1.3
	통신 시설	7.7	6.9	-0.8
	공동체 활동	5.7	5.8	0.1
	(평균)	7.0	6.3	-0.7
경제활동·일자리	소득 기회	6.0	5.0	-1.0
	경제여건 향상	6.0	5.3	-0.7
	농외소득	5.8	5.0	-0.8
	(평균)	5.9	5.1	-0.8
문화·여가	여가시설	6.7	5.1	-1.6
	여가 프로그램	6.6	4.8	-1.8
	향토문화 향유	6.3	5.2	-1.1
	(평균)	6.5	5.0	-1.5
환경·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7	6.3	-0.4
	에너지 비용 절감	6.3	5.3	-1.0
	적은 환경오염	6.5	6.2	-0.3
	(평균)	6.5	5.9	-0.6
안전	범죄 안전	6.8	6.8	0.0
	교통 안전	6.6	6.5	-0.1
	자연재해 안전	7.2	7.0	-0.2
	화재 발생 대응	7.2	6.7	-0.5
	농작업 안전	7.2	6.2	-1.0
	(평균)	7.0	6.6	-0.4
〈표본수〉		〈1,039명〉	〈1,991명〉	-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3	6.1	-1.2
	의료 서비스 수준	7.1	5.6	-1.5
	아동 양육·보호 지원	6.6	5.6	-1.0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5.7	-0.7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5	-1.5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4	5.6	-0.8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6.5	5.1	-1.4
	(평균)	6.8	5.6	-1.2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5.7	-0.8
	방과 후 교육 기회	6.5	5.7	-0.8
	평생학습 기회	6.0	5.3	-0.7
	시설 및 교육 필요장비(평균 산출시 제외)	6.5	5.8	-0.7
	학생 통학 어려움(평균 산출시 제외)	6.8	5.8	-1.0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6.0	5.4	-0.6
	(평균)	6.3	5.5	-0.8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	6.6	6.6	0.0
	생활 인프라	7.0	6.3	-0.7
	생활 서비스	7.1	6.2	-0.9
	대중교통	7.1	5.7	-1.4
	통신 시설	7.5	6.7	-0.8
	공동체 활동	6.2	5.9	-0.3
	(평균)	6.9	6.2	-0.7
경제활동·일자리	소득 기회	5.6	5.1	-0.5
	경제여건 향상	5.6	5.2	-0.4
	농외소득	-	5.2	-
	일자리 지원	5.6	5.1	-0.5
	청년 일자리 지원	5.4	5.0	-0.4
	(평균)	5.6	5.1	-0.5
문화·여가	여가시설	6.2	5.4	-0.8
	여가프로그램	6.1	5.3	-0.8
	향토문화 향유	6.2	5.6	-0.6
	문화 공동체 활동	5.6	5.1	-0.5
	(평균)	6.0	5.4	-0.6
환경·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4	6.1	-0.3
	에너지 비용 절감	5.9	5.6	-0.3
	적은 환경오염	6.3	5.9	-0.4
	(평균)	6.2	5.9	-0.3
안전	범죄 안전	6.7	6.6	-0.1
	교통 안전	6.4	6.3	-0.1
	자연재해 안전	7.1	6.6	-0.5
	화재 발생 대응	7.0	6.3	-0.7
	농작업 안전	6.7	6.1	-0.6
	안전시설 및 설비	6.7	6.0	-0.7
	(평균)	6.8	6.3	-0.5
〈표본수〉		〈949명〉	〈2,203명〉	-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4	6.1	-1.3
	의료 서비스 수준	7.0	5.6	-1.4
	아동 양육·보호 지원	6.4	5.6	-0.9
	취약계층 복지 지원	6.2	5.6	-0.6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8	5.6	-1.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2	5.5	-0.7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6.4	5.1	-1.3
	(평균)	6.6	5.6	-1.1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5.8	-0.7
	방과 후 교육 기회	6.4	5.7	-0.7
	평생학습 기회	6.0	5.4	-0.6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8	5.2	-0.6
	(평균)	6.2	5.5	-0.7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	6.5	6.6	0.1
	생활 인프라	7.0	6.3	-0.6
	생활 서비스	7.0	6.1	-1.0
	대중 교통	7.0	5.7	-1.3
	통신 시설	7.5	6.7	-0.9
	공동체 활동	6.0	5.9	-0.1
	(평균)	6.8	6.2	-0.6
경제활동·일자리	소득 기회	5.1	5.1	0.0
	경제여건 향상	5.0	5.1	0.1
	농외소득	-	5.1	-
	일자리 지원	5.2	5.0	-0.2
	청년 일자리 지원	-	-	-
	(평균)	5.1	5.1	0.0
문화·여가	여가시설	6.1	5.3	-0.8
	여가프로그램	5.9	5.1	-0.8
	향토문화 향유	5.9	5.6	-0.4
	문화 공동체 활동	5.3	5.1	-0.2
	(평균)	5.8	5.3	-0.5
환경·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3	6.3	0.1
	에너지 비용 절감	5.7	5.4	-0.3
	적은 환경오염	6.1	6.0	-0.1
	(평균)	6.0	5.9	-0.1
안전	범죄 안전	6.5	6.8	0.3
	교통 안전	6.1	6.3	0.2
	자연재해 안전	7.0	6.7	-0.2
	화재 발생 대응	-	-	-
	안전시설 및 설비	-	-	-
	농작업 안전	-	6.3	-
	(평균)	6.5	6.6	0.0
〈표본수〉		〈719명〉	〈2,344명〉	-

4.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 여건 만족도

〈2020년 조사 결과〉

(11점 척도)

구분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농어업인	그 외 직업	귀농·귀촌인	아님
의료 서비스 접근성	5.6	6.1	5.5	5.4	5.9	5.4	5.7
의료 서비스 범위	4.6	5.3	4.9	4.9	5.0	4.8	5.0
의료 서비스 수준	4.7	5.3	5.0	5.0	5.1	4.9	5.1
분만 의료 서비스	3.8	4.6	4.6	4.7	4.3	4.1	4.5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4.2	5.2	5.7	5.7	4.9	5.1	5.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4.9	5.6	5.8	5.8	5.3	5.5	5.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0	5.6	5.4	5.5	5.3	5.4	5.4
취약계층 복지 지원	4.9	5.7	5.9	6.0	5.3	5.8	5.6
농어작업 안전	4.0	6.0	6.0	5.9	-	5.8	6.0
(보건·복지 부문 평균)	4.6	5.5	5.4	5.4	5.1	5.2	5.3
공교육 수준	5.2	5.5	5.0	5.0	5.4	5.4	5.2
방과 후 교육 기회	5.1	5.4	4.7	4.7	5.3	5.1	5.0
평생교육 기회	4.7	5.1	4.4	4.4	4.9	4.9	4.7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4.8	5.0	4.3	4.3	4.9	4.9	4.6
문화여가 시설	4.6	5.0	4.1	4.1	4.8	4.7	4.5
문화여가 프로그램	4.4	4.8	4.0	4.0	4.7	4.7	4.4
문화 공동체 활동	4.4	4.9	4.6	4.7	4.6	4.8	4.6
향토문화 향유	4.8	5.2	4.7	4.7	5.1	5.1	4.9
(교육·문화 부문 평균)	4.8	5.1	4.5	4.5	5.0	5.0	4.7
대중교통	4.5	5.4	5.5	5.5	5.1	5.0	5.3
통신시설	6.3	6.6	5.5	5.5	6.5	6.1	6.1
생활 인프라	6.0	6.3	5.5	5.5	6.2	5.6	5.9
생활 서비스	5.7	6.1	5.1	5.2	5.9	5.4	5.7
주택 상태	5.9	6.3	5.6	5.6	6.1	6.0	5.9
교통안전	5.6	6.2	6.1	6.2	6.0	6.0	6.0
자연재해 안전	5.9	6.4	6.2	6.2	6.2	5.9	6.2
범죄 안전	6.1	6.6	6.5	6.5	6.4	6.5	6.4
적은 환경오염	5.5	6.2	6.2	6.2	6.0	6.2	6.0
정돈된 환경·경관	5.9	6.3	6.3	6.3	6.2	6.3	6.2
에너지 비용 절감	5.1	5.5	5.5	5.5	5.4	5.4	5.4
(정주기반 부문 평균)	5.7	6.2	5.8	5.8	6.0	5.9	5.9
소득기회	4.5	4.8	4.2	4.2	4.6	4.5	4.5
경제여건 향상	4.6	4.8	4.4	4.5	4.7	4.7	4.6
농외소득	5.2	5.1	4.7	4.7	5.1	5.0	5.0
일자리 지원	4.6	4.8	4.5	4.6	4.7	4.7	4.7
여성·다문화 일자리	4.6	5.0	4.8	4.8	4.8	5.0	4.8
(경제·일자리 부문 평균)	4.7	4.9	4.5	4.6	4.8	4.8	4.7
(표본 수)	509	836	874	835	1384	270	1,949

참고문헌

송미령, 김광선, 성주인, 채종현, 최용욱. (2012).『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채종현. (201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노승철, 권인혜, 한태녕. (201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심재헌, 유은영. (201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심재헌, 유은영. (201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은영, 박지숙. (2017).『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은영. (2018).『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민석. (2019).『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9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2017).『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촌진흥청. (2018).『2018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통계청. (2019).『국민 삶의 질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2019).『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OECD. (2015),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Better Life Initiative.

참고 웹사이트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www.index.go.kr/unify/main.do